

월간

공군



Seoul ADEX 2023

제544호

10

- 04 기획
서울 ADEX 2023 미리 보기



- 20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F-51D(Mustang)



- 10 특집 I
안녕! 공군 문화예술
V. 공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상상하다

- 14 특집 II
미래를 향한 공군의 준비 에어포스 퀀텀 5.0
스페이스 오디세이

- 16 특별기고_정신전력 탐구생활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시작점으로 시간여행을 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 '비행가양성소'



- 22 Aero Detail
중국의 주요 전투기



- 28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독새우 독트린, 싱가포르공군

표지(앞) 서울 ADEX 2023 행사장 상공을 비행하는 하늘이프렌즈 (병장 황원진)

발행일자 2023년 10월 1일(통권 제544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상화
편집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집감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획·편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이다현
전자도서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3090319)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p>32</p>	<p>특별인터뷰 부산 동신초, 선호승 선생님</p> 	<p>52</p>	<p>시와 비행하다 익선동</p>
<p>38</p>	<p>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p>	<p>54</p>	<p>생각하는 그림 영공을 수호하는 최선의 자세, 유비무환(有備無患)</p>
<p>46</p>	<p>슬기로운 장병생활 역경을 이겨내는 꾸준함</p>	<p>56</p>	<p>공군인의 편지 눈 위의 발자국 (계룡대근무지원단 수송대대 일병 남태현)</p>
<p>48</p>	<p>한 달, 한 권 현실 밀착형 소설: 『달까지 가자』</p>	<p>57</p>	<p>책 읽는 공군 도전하기, 부딪히기, 느리게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기 (18전비 감찰안전실 병장 백종현)</p>
<p>50</p>	<p>영화로운 나날 0에 수렴하는 인간의 불완전함: 「오픈하이머」</p>	<p>58</p>	<p>토닥토닥 상처의 천적, 상상력</p>
		<p>59</p>	<p>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p>

SEOUL ADEX



2023



Seoul



ADEX



2023

미리보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텍스)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시작해 7회째인 2009년부터 2년마다(매 홀수년) 10월에 개최하는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겸 에어쇼입니다. 서울 ADEX 2023은 오는 10월 17일(화)부터 10월 22일(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17일(화)부터 20일(금) 4일간은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데이(Business Day)로, 21일(토)과 22일(일) 이틀은 일반인이 입장 가능한 퍼블릭 데이(Public Day)로 운영됩니다. 지난 서울 ADEX 2021에는 28개국 440개사가 참가한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항공·지상무기체계와 함께 우주와 AAM(Advanced Air Mobility·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전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www.seouladex.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3



2



6



7



9





4



5



8



Seoul ADEX 2021

Seoul ADEX 2021

서울 ADEX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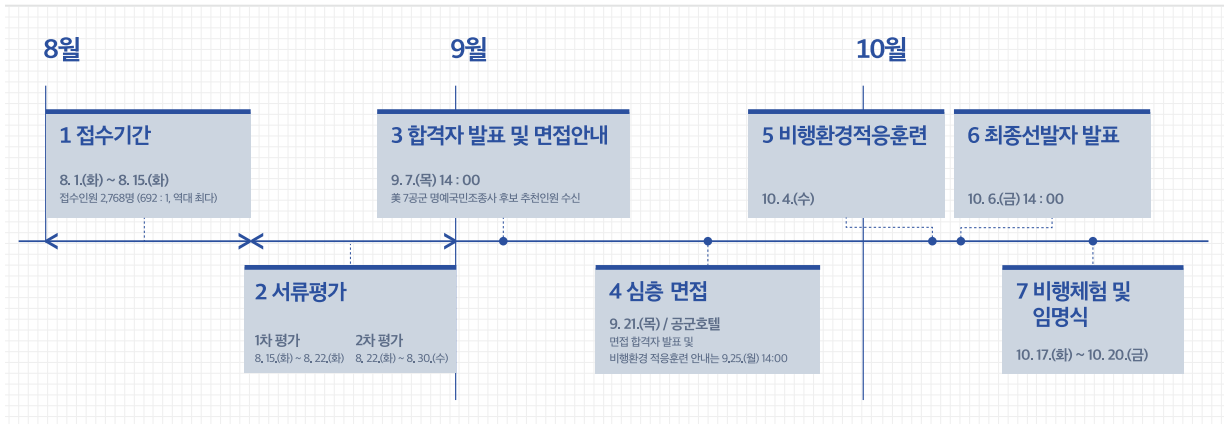
※ 사진은 서울 ADEX 2021 사진으로, 행사장과 관계없이 임의로 배치했습니다.

- 1 블랙이글스 개막식 축하비행
- 2 고공강하
- 3 야외전시장
- 4 비행 체험
- 5 항공우주전시관 체험존
- 6 실내전시관
- 7 제8기 국민조종사 임명식
- 8 드립데이
- 9 제6회 공군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대회

국민조종사 면접 현장에 가보다!



제9기 국민조종사 선발 일정



※ 심층 면접 후 진행한 인터뷰는 참석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선정된 인원은 심층 면접 합격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심층 면접 최연장자, 홍기영 님(1953년생)

어린 시절 영화 「빨간 마후라」를 보고 ‘빨간 마후라’ 노래를 부르고 살며, 어머니를 줄라 빨간 목도리도 두르고 다녔습니다. 제 인생의 좌표는 전투기 조종사라고 생각 했으나, 공군사관학교 입학에 낙방해 안과 전문의가 됐지만, 그때의 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의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심층 면접 최연소자, 임유진 님(2005년생)

이번 제9기 국민조종사 선발 경쟁률이 역대 최고라고 들었는데, 40명 안에 들었 다는 것이 기쁩니다. 면접에서 선발돼 최종선발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의 매력은 공중이란 새로운 차원에서 활동해 우리가 걸어 다니며 생활하는 곳과 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정유정 님(1995년생)

“사랑반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도전하고, 언제나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 기하는데, 선생님이 실천할 기회를 얻었어. 선발돼 너희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 길 바라! 그리고 나 자신, 유정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계에 부딪히며 위축되고 지 치기도 했는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웨더뉴스 기상캐스터 이현서 님(1992년생)

방송보다 더 떨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더글로리」의 연진이와 달리 날씨 원고를 직접 씁니다.(웃음) “1차 서류평가에 합격했을 때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처럼 기분이 좋았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는 긴장을 해서 그런지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습니다. 다시 날씨가 맑아질 수 있도록 제가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직 조종사 故김종수 소령의 형, 김종섭 님(1973년생)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국민 조종사도 계속 발전해 나갔 으면 좋겠습니다. 조카들에게 아직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조카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빠가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계시 니까 항상 건강하고 밝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행제어체계팀 선임연구원, 이창용 님(1991년생)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님의 “조종할 줄도 모르면서 비행 제어를 개발하냐”라는 말 씬에 충격받고, 경량항공기 조종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이 개발철 학이 됐습니다. 조종하면서 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배우고, 실제로 비행하 면서 느낀 것이 실제에 적용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공군 문화예술

V. 공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상상하다

문명 전환의 시대, 문화예술의 또 다른 역할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다. 요즘 유행하는 타임 슬립(time slip)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삶은 매 순간 새로움의 연속이다. 그런데도 최근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하루하루는 ‘문명 전환’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다.

먼저 생태파괴와 기후재난의 문제다. 하와이 대형 산불, 리비아 댐 붕괴, 모로코 대지진, 홍콩 폭우... 불과 지난 몇 주 사이의 일들이다. 어느새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 됐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 중심의 산업화와 무차별적인 성장주의가 가져온 결과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를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이자 오직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정의해왔다면, 이제 자연·생태 등과 공존하지 못하는, 오직 인간만을 위한 문화는 인간종의 소멸을 위협할 정도로 한계에 도달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명 전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기술이 발달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기술낙관주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자동화 기술은 일자리 문제를 낳았고, 유전자 기술은 초고령사회와 의료·복지서비스의 양극화를 앞당겼다. 어느새 인류는 SF 판타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인공지능의 반격을 두려워하게 됐다. 오직 인간만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오래된 오만은 이제 인간과 유사한, 혹은 더 뛰어난 지능을 보유한 존재가 등장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인간만의 영역일 것이라 확신했던 ‘예술’은 어느새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간단한 명령어만으로도 너무나 손쉽게 창작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처럼 기후위기,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 지역소멸과 과밀도시, 혐오범죄 등 기존에는 상상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명 전환과 다중위기의 세계를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명



사례 ① 기후위기 KEYWHOWEKEY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기획자·디자이너·활동가들이 모여 실크스크린 작업을 통해 중고 티셔츠를 재활용하는 작업 등을 한다.



사례 ② 이야기청(이야기 나누는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초)고령사회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이야기를 예술가들이 경청하고, 이를 작업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 해마다 작업 결과물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연, 전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사례 ③ 극단 '춤추는 허리' 장애 여성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는 극단. 장애 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 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전환과 다중위기 속에서 문화·예술 역시 많은 고민과 변화를 하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단순히 여유롭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은 하나의 분야·장르·업종 이전에 삶의 태도이자 상상력이라는 좀 더 본질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미 국내외의 문화기획자와 예술인들은 이러한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의 연계가 대표적이다.(사례 ①) 문화·예술은 기후위기를 작업의 주제로 다루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예술 활동은 그 자체가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자 캠페인의 역할을 한다. 또한, 공연·축제·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 자체의 탄소배출 저감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감시(모니터링)하며 친생태적인 창작 환경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후위기 이외에도 기술혁신, 고령화, 지역소멸 등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개별 작업과 커뮤니티 아트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사례 ②, ③)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공군 문화예술 활동에 관해 상상하다

문명 전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공군을 둘러싼 문화·예술 역시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공군 문화·예술을 공군 내부의 군대 문화, 병영문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성에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보다 군대(공군)는 우리 사회의 매우 다양한 세계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태도가 준비된다면 공군을 둘러싼 세계와 관계는 앞으로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것이다.

먼저 과학기술의 혁신은 공군의 정체성과 활동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공군우주사령부(AFSPC, Air Force Space Command)를 모태로, 미국 우주군(USSF, United States Space Force)을 2019년에 창설했다. 이제 공군의 시공간은 인간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던 라이트 형제 때와는 전혀 다르다. 세계화가 아닌 우주화(우주경쟁)의 시대에 공군 문화가 더는 '빨간 마후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군 문화·예술이 병영문화를 연결하되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면 좋겠다. 한국의 군대는 언제나 ‘병영문화의 선진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우주화·행성화의 시대에 ‘병영문화의 선진화’란 무엇일까. 이미 동시대의 문화·예술이 그러하듯 병영문화 역시 취미·여가 생활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공군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의 문화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 시대에 공군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공군이 가진 하늘에 대한 오랜 전문성과 인프라(infrastructure·사회간접자본)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인간안보, 환경안보 등에 분명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이 병영문화를 포함해 탄소 중립*과 생태친화적인 군 조직(시스템)의 국내의 혁신 모델이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

지역문화와의 협력과 연계 역시 군대의 문화·예술이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다. 모든 군부대는 지역에 위치하며 로컬리티(locality·지역성) 속에서 존재한다. 군부대가 때로는 기지오염, 군인범죄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론 재난지원, 대민지원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공군의 문화·예술 활동이 해당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와 적극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병영 내의 취미·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가치 있는 지역문화 협력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의 예술교육·축제·문화 재생·생태문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인들을 위한, 군인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이 기획되고 확산할 수 있다.

인도와 미국, 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인류학자인 아미파브 고시(Amitav Ghosh)는 지금의 현대 사회를 ‘대혼란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다.”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는 인류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방식이 가져온 위기라는 의미다. 이처럼 공군의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개별화된 분야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군이라는 커뮤니티의 생활양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한다. 공군의 군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의 행복한 삶, 삶의 질을 고민해 보고 이를 위한 변화의 과정을 문화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군대 문화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공군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적 차원의 가능성’에 주목하자. 

* 탄소 중립(carbon neutral):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CO₂)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글쓴이 이원재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서울 성북과 전북 고창에서 서식하며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문화연구, 로컬기획, 사회운동을 연결하고자 한다.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를 수료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문화정책을 전공(석사, 박사 수료)했다.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서울문화재단 이사, 서울특별시시장 문화특보 등을 역임했다.

2023 월간 「공군」

코너별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기간: 2023. 10. 31.(화) 까지

2023. 10. 01 공군생일 ♥

새로운 리가지 태그!

보관이 용이해지면 안돼!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25분께
하늘이 러기지 태그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 QR코드



스페이스 오디세이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성공은 우리 국민이 우주를 가깝게 여기고 친밀하게 생각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 몇몇 넘사벽 선진국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도 진입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회 주요 인프라(infrastructure·사회간접자본)다. 매일의 생활이 우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아침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는 기상위성의 도움을 받고, 출근할 때 이용하는 차량 내비게이션은 항법위성, 요즘 뜨거운 이슈인 지구온난화나 재난 재해 모니터링은 환경위성, TV 시청은 통신방송위성이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에는 이에 더해 우주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반과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 Space Odyssey 2050』 표지

군에서의 우주 활용은 이러한 인프라 수준을 넘어서 생존경쟁의 영역이다. 전쟁에서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 군 작전에 특화된 군 통신, 정밀유도무기를 위한 항법 등 우주에서 지원이 없으면 아예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러한 우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군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필요한 우주전력자산을 단계적으로 확보·운영하는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공군의 발전전략인 에어포스 퀀텀 5.0의 5대 프로젝트 중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고대 그리스 모험 서사시인 오디세이처럼 공군의 우주로의 새로운 모험을 의미한다. 물론 이 모험은 재미있다고보다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행하는 일이다.


공군의 새로운 모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하늘과 우주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공군의 작전영역이 우주로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다. 위성이나 발사체, 탄도미사일이 우주로 진입하거나, 지구로 재진입할 때 반드시 공중영역을 거치게 되므로 공중작전과 우주작전이 연계된 공간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항공자산과 우주자산을 상호협력 운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공군이 우주작전을 선택하는 이유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상의 우주작전을 구체화해 보면, 먼저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 통신, 항법 등 우주기반 정보를 공지해 작전에 지원하는 ‘우주정보지원 작전’, 우주로 이러한 우주전력자산을 운반하거나 기동할 수 있는 ‘우주전력투사 작전’, 우주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우주영역인식작전’과 적의 우주체계에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아군의 우주체계를 방어할 수 있는 ‘우주통제작전’으로 구분된다.



공군은 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2050

년까지 3단계의 발전목표를 세우고 전력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1단계는 2030년까지 우주영역인식작전을 위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우주기상예경보체계 구축하고, 우주정보지원작전을 위해 초소형위성체계 등을 구축해 우주기반 감시정찰 수행여건을 조성하고자 하고, 2단계는 2040년까지 우주영역인식작전을 고도화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우주감시체계 구축, 조기경보위성체계와 한국형위성항법체계 등을 확보하여 전천후 우주정보지원능력을 확보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50년까지 유무인 우주비행체, 수명연장용 우주비행체와 지상·공중·우주기반 우주통제전력을 확충해 우주전력투사작전과 우주통제작전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우주는 이제 국가 사활을 건 경쟁 분야이며 전장(戰場) 영역이 되고 있다. 공중·지상·해양 영역작전에서 우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주전력자산을 확보하고, 또한, 이렇게 군사우주력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우주자산에 대한 도발 및 공격에 대비하는 역량도 키워야 한다. 미래의 모든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할 것이다. 공군이 향후 30년간 전개될 우주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응원한다. 



글쓴이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전남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에서 변호사(Solicitor) 시험에 합격했다. 공군 미래기획위원회 위원과 우주력발전위원회 정책전략분과장을 맡고 있다. 전남대 연구교수('0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협력팀장('11~'14), 우주정책팀장('15~'17), 정책연구부장('18~'19)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본부장('21~)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항공우주 정책, 법 및 국제협력 등이며, 저서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감독제도』가 있다.



2023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2023 INTERNATIONAL AEROSPACE SYMPOSIUM

주최



2023. 10. 16.(월) 10:00~17:00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시작점으로 시간여행을 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 '비행가양성소'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 항공이 시작된 비행학교를 주제로 연구와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비행학교가 자리했던 공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미루다 올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7년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유산 주제연구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AAPI) Heritage Theme Study』에서 AAPI 자원 중 독특하며 그 역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비행가양성소'의 건물과 비행장의 무결성을 평가해 1920년 외관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에서 출발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이에 연구에서 양국의 문화재 등재에 필수요소인 공간 기록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비행학교 소유주와 협의해 공간 기록화의 핵심인 비행학교 건물 내외부 기록 일정을 잡았다. 불볕더위와 뜨거운 햇살이 가득했던 8월, 국립항공박물관 연구진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학교는 쌀농사가 대표적인 캘리포니아주의 윌로우스 외곽에 자리해있다.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8시간 정도, 박희성과 이용근이 비행학교 폐교 후 비행사면허증을 취득하고자 머물렀던 새크라멘토와도 9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여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재미교포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운영된 우리나라 첫 비행학교의 모습이 어떨지, 사진으로만 보던 공간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기에 기대감과 부담감을 안고 비행학교로 향했다.



비행학교 건물 및 당시 터 위치(구글 지도 활용)

비행학교 건물과 1920년 당시 비행학교 터, 두 장소를 기록화 작업했다. 교실로 사용했던 비행학교 건물은 현재 모습을 정밀실측 후 1920년 당시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고, 전체적으로 3D 스캐닝하되 부분적으로 추가 사진 촬영도 했다. 비행학교 터는 현재 남아있는 건물의 시대를 확인해 비행학교와 직접 관련 있는 공간만 실측하고, 그 외의 공간과 건물은 현장을 기록하는 정도만 촬영했다.

연구진은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당시 사진과 같지만 조금 달라진 건물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기록화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보존담당자가 동행해 교사(校舍)의 보존상태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윌로우스 한인비행기양성소 교사 1920년



비행학교 교사 2010년대



비행학교 교사 2023년

건물 외부는 과거의 모습을 60%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건물의 정면과 좌측에 기존에 없던 벽체를 덧붙여 설치돼 좌측의 외벽상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포치(porch)¹⁾ 상부는 다시 제작했고, 과거 가족이 거주했던 집이기에 우측엔 벽돌로 만들어진 굴뚝과 주방에서 외부로 통하는 문이 생겼으며, 지금은 창고로 사용되어 주방 쪽을 제외한 모든 창은 막아놓은 상태였다. 우측 4개의 창문 중 세 번째 창은 막고 새로운 창 2개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그 창들도 폐쇄됐다. 뒷면은 일부를 새로운 재료로 막아놓았을 뿐 변형된 부분은 거의 없었으나 목재가 뜨거운 열기에 뒤틀리고 벌레가 갉아먹은 상태로 노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 포치(porch): 건물의 현관 또는 출입구의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부분으로 비바람을 막는 곳

건물 내부는 건물 벽과 앞·뒷문을 제외한 대부분이 변형됐다. 당시의 건물들은 주 출입구로 들어오면 전실과 교실,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건물은 가정집으로 사용할 때 벽과 문을 추가 설치해 주방과 욕실을 새로 만들었고,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물의 재료 및 양식 등을 확인하고, 한 번 더 항공사진으로 위치를 비교해 당시 건물인지 확인한 결과 전체가 당시 건물이 아닌 이후 축조된 건물이었다. 그래서 터에 대한 기록화 및 현재 상태에 대한 기본 실측과 사진 촬영을 했다. 40에이커(161,874.26m², 약 48,967평)를 실제로 바라보니 그저 ‘넓다! 한 눈에 온전히 볼 수 없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공간을 파노라마 촬영하면서, 드론으로 촬영하지 않는 한 공간 촬영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다.



비행학교 교사 단면도 및 내외부 현황

참고자료 및 출처

- [연구보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의 역사와 유적지 활용방안(2021, 국립항공박물관)
- [학술대회자료집]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효시(2021, 국립항공박물관)
- [학술대회자료집] 국립항공박물관 개관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 100년의 의미(2020, 국립항공박물관)
- [학술논문] 미국 월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 건물의 역사 및 건축적 고증에 관한 연구(2022, 임종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 [온 라 인] 국립항공박물관 블로그,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National Park Service(201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Theme Study, 2017) 등

비행학교 터 사진(파노라마 촬영²⁾)



2) 파노라마 촬영(panorama 撮影): 촬영기를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또는 위아래로 움직여서 넓은 범위의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

비행학교 터에는 총 7종의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중 크기가 있는 구조물 중 ③은 격납고로 잘못 설명이 된 적이 있었다.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너비와 높이가 J-1의 크기보다 작았고 중간에 기둥이 있어 격납고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⑤의 건물은 기숙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건물 내의 집기 및 건축물 자체가 비행학교 이후의 것이었다. 무엇보다 퀸트스쿨 자리에 교사가 있었기에 건물을 옮



당시 학교부지(40에이커)

비행학교 일원(一圓)

기면서 기숙사도 옮겨 세웠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당시 격납 및 정비 위치는 1920년 비행학교 학생과 건물 등의 사진을 종합해 볼 때 건물 정문을 중심으로 우측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물관에서 진행한 2021년도 연구의 항공사진에서 비행학교 위쪽으로 북서쪽과 남동쪽을 잇는 선이 보여 해당 위치에 활주로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현장에서 검토해 본 결과 비행학교 터의 위쪽으로는 농경 수로가 있어 비행기를 해당 위치까지 이동할 때 수로를 지나기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했다. 40에이커의 넓이를 생각했을 때 비행학교 활주로는 김종립이 빌린 터 내에 위치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기록화 사업이 완료되면 활주로와 격납고의 위치를 예측이 아닌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집이 됐다가 현재 창고로 사용 중인 비행학교 교실과 터를 둘러보면서 당시 비행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후원했던 사람들과 항공독립운동을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했던 학생들의 모습이 상상됐다. 비행학교 사람들은 이 드넓은 공간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미루어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학교공부에 군사훈련 그리고 농사까지 겸했을 그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 기고를 통해 쌀농사에 적합할 정도로 뜨거운 햇살과 40도를 넘는 기온을 견디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비행술과 무선통신 등의 기술을 배우고 가르친 대한민국의 첫 비행학교 사람들을 떠올리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 ■




글쓴이 이진형 국립항공박물관 학예연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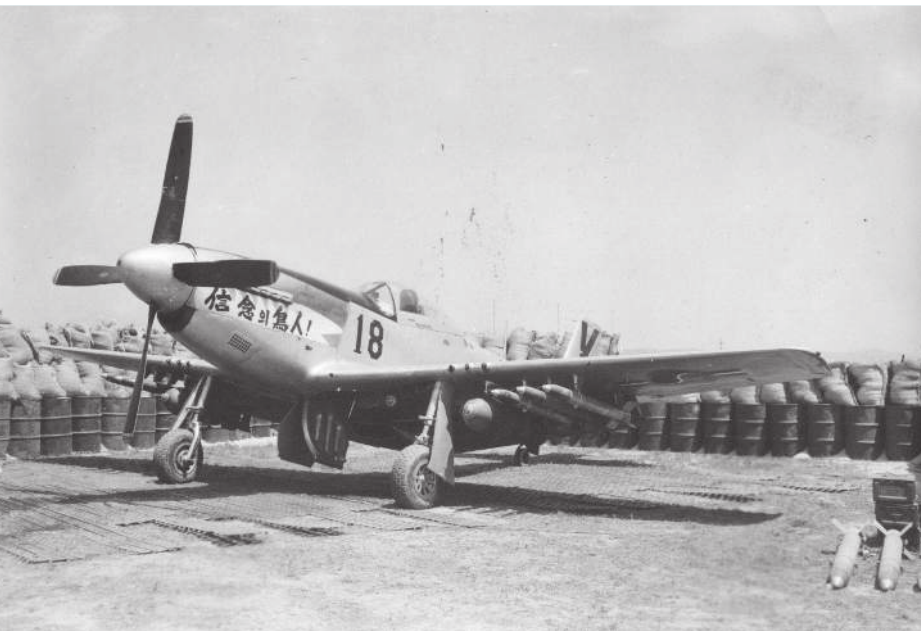
물리학, 문화예술학, 박물관학, 문화자원 기록을 전공하고 현재 국립항공박물관 학술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내외 항공유산 조사연구 및 항공자료 정보 허브 구축 등 항공분야의 학술연구 및 교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F-51D MUSTANG

대한민국공군의 최초 운용 전투기로 故 딘 헤스 미 공군 대령이 타던 18번기 신념의 조인(信念의 鳥人)이 가장 유명하다. 한국 전쟁 발발 후 조종사 10명이 일본으로 넘어가 일주일 만에 조종법을 익히고, 같은 해 7월 2일 미국으로부터 10대를 인수했다. F-51D는 한국전쟁 직후 도입돼 1955년 F-86 세이버 도입 전까지 133대로 총 8,459회 출격하며,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을 수행하는 등 주력기 임무를 담당했다. 





길이 9.8m

폭(너비) 11.3m

높이 4.2m

최대속도 703km/h

무장

0.5inch 고정식 전방 발사 기관총 6정,
폭탄 및 로켓 907kg

Aero Detail

중국의 주요 전투기

중국의 첫 독자개발 전투기 J-8



중국의 첫 독자개발 전투기 J-8

J-8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전투기다. 기존에 J-5, J-6, J-7 등 중국이 자체 생산한 전투기는 있지만, 이들 기종은 각각 구소련의 MiG-17, MiG-19, MiG-21을 그대로 복제한 기종이다. 구소련의 기술지원으로 전투기를 확보하던 중국은 1960년대에 들어 구소련과 외교관계가 악화하자 고성능 초음속 기종을 독자개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6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전투기가 J-8이다.

중국공군은 J-8의 작전운용성능을 최대속도 마하 2.2 (약 2,717km/h), 최대고도 20,000m 이상, 장거리 탐색 레이더 탑재 등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는 구소련이라면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었지만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었던 중국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중국은 새로운 설계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J-7 전투기 형상에서 크기를 키우고, 엔진을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것으로 개발 방향을 잡았다.

처음 제작한 J-8 시제기는 초음속 비행에서 진동이 발생했고, 비행 중 엔진이 정지하는 등 많은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였다. 그리고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20년이 지난 1985년에야 겨우 양산형을 배치할 수 있었다.



J-8의 기수, 공기흡입구를 대폭 개량한 J-8II 전투기

J-8 양산형에 만족하지 못한 중국은 1986년 판버러(Farnborough) 에어쇼에서 J-8의 발전형인 J-8II를 공개했다. J-8II는 기수의 공기흡입구를 동체 측면으로 옮기고, 기수에는 대형 레이돔을 설치했다. 완전히 바뀐 기수 때문에 J-8II는 J-8I과는 별개의 기종으로 인식될 만큼 달라 보였다.

J-8II의 전체적인 모습은 MiG-21을 확대했다기보다는 수호이 Su-15 플래긴 요격기에 가깝다. 기존에 개발된 J-8I은 기수에 공기흡입구가 위치해 레이더를 탑재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J-8II는 기수의 공기흡입구를 제거하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J-8I보다 큰 레이더 안테나를 탑재했다.

J-8II는 J-8I에 비해 추력중량비와 기동 성능도 개선됐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의 문제점은 여전히 중국은 1987년 8월, 5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제 항공전자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제 전자장비를 탑재해 성능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은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취소됐다.

미국과 기술협력이 좌절되면서 중국은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중국은 러시아의 파조트론 사가 개발한 Zhuk(주

크)-8 다기능 레이더를 도입할 수 있었다. 주크-8 레이더는 다목표 추적능력, 하방 탐색 및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J-8II의 공중전 성능을 크게 향상했다.

J-8II는 공대공 무장으로 주크-8 레이더와 연계해 AA-12, AA-10 등의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한다. 대지 공격용 무장으로는 로켓 포드, 일반폭탄, 활주로 파괴폭탄 등 다양한 무장도 탑재할 수 있다.

J-8II는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지만, 미 해군기와 충돌하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2001년 4월 1일, 전자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의 EP-3E 정찰기와 요격 임무를 수행하던 J-8II가 서로 충돌해 EP-3E가 중국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불시착한 EP-3E와 승무원들은 협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때 충돌했던 J-8II는 해상에 추락했다.

J-8II는 J-10, J-11 등 신형 전투기가 많아지면서 중국공군에서의 위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2020년대에 완전히 퇴역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J-10 전투기



J-10은 중국공군의 곡예비행대 기종으로도 운용되고 있다.

중국공군은 구소련 전투기를 대량 생산했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전투기가 대부분이었다. 신형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중국은 Su-27, Su-30 등을 도입했지만 고성능기로 모든 전투기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노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은 저가의 신형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배경하에 탄생한 J-10 전투기는 처음부터 로우급

전투기를 목표로 했다. 연구는 상당히 오래전인 1984년부터 시작됐고, 기체 형상과 세부 설계는 1990년대 초에야 본격화됐다. J-10의 초도 비행은 1995년에 이뤄졌지만, 중국은 1998년 3월에 공식적인 성공을 알렸다.

J-10의 외형은 이스라엘이 1980년대에 개발하다가 포기한 라비 전투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라비와 카나드(동체 앞부분의 작은 날개) 위치, 조종석 후방 동체, 공기흡입구가 다르지만, 전반적인 공력 형상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것은 J-10 개발과정에 이스라엘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개발 참여를 부인하고 있다.

주익에는 기동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공중전 플랩(덮개)이 설치됐고, F-16이나 라비 전투기의 동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소형 안정핀도 J-10에 부착됐다. 조종계통은 전자식 비행 제어를 적용하고 있고, 전방시현장치와 액정 디스플레이 등 4세대급 전투기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 레이더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한다.

엔진은 러시아의 Su-27 플랭커 시리즈가 탑재하는 AL-

31FN 터보팬 엔진을 단발로 탑재했다. 중국은 동급 엔진으로 WS-10B를 독자개발해 J-10C형부터 탑재하고 있다.

J-10은 주익 하단에 6개, 동체 하단에 5개 등 총 11개의 외부 무장장착대를 갖고 있다. 외부 연료탱크는 주익 안쪽과 동체 중앙에 탑재할 수 있고, 고정 무장으로 동체 내부에 23mm 기총을 장착하고 있다.

공중전 무장으로는 PL-8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1,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 상당한 공중전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동성 측면에서 J-10은 기존 중국제 전투기답지 않은 고기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군은 요격기로 플랭커 계열을 운용하기 때문에 J-10을 지상공격 임무에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J-10은 중국이 새로 개발한 GPS 유도폭탄, 레이저 유도폭탄 등 정밀유도무기와 대함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중국공군의 주력기로 상당 기간 사용될 전망이다.



PL-8, PL-12 공대공 유도탄을 탑재한 J-10B

중국 FC-1 전투기



중국의 수출형 전투기 FC-1은 JF-17로도 불리운다.

중국이 MiG-21을 기초로 복제한 J-7 전투기는 마하 2급의 경량 전투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해 제3세계 공군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구형 전투기이기 때문에 서방측 신형 전투기와 성능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한 J-7의 장점을 이어가면서 더욱 성능을 향상한 수출형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형 전투기의 명칭은 당시에 슈퍼 F-7로 불렸으며, 서방측의 전자장비를 탑재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천안문 사태가 발발하여 주요 기술협력국이었던 미국이 중국과 계약을 파기하면서 슈퍼 F-7 개발계획은 중단됐다. 한편 신형 전투기 도입이 필요했던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F-7MP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개발한다는 슈퍼 F-7 개발은 취소했지만,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FC-1이란 이름으로 수출형 전투기 개발을 지속해 나갔다. FC-1은 1995년 파리에 에어쇼에 모형이 전시되면서 서방측에 처음 공개됐다. 러

시아 측은 미그 설계국이 기술적인 지원을 했고, 파키스탄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외형적으로 FC-1은 J-7의 발전형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대폭 변경됐다. 기수에 있는 공기흡입구는 동체의 양 측면으로 이동해 기수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확보된 공간에는 J-7과 달리 상대적으로 대형인 중국산 레이더가 탑재된다.

FC-1은 기존의 J-7과 달리 요격 임무뿐만 아니라 공중전 성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비행 성능 향상과 더불어 외부무장 탑재량이 증가해 J-7 계열보다 뛰어난 대지공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 엔진은 추력 8t급의 러시아제 RD-93을 단발로 장착하며, 한때 러시아는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FC-1의 엔진 공급을 거부한 적도 있었다.

무장장착대는 동체 아래에 한 군데, 주익 아래에 두 군데씩 모두 다섯 군데이며, 주익 끝에는 F-5, F-16 등 서방측 전투기와 유사한 스타일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는 PL-5, PL-8

등 중국산 미사일이 탑재되고,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해 기존 J-7 전투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공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공대공 미사일 외에도 일반폭탄과 공대함 미사일, 로켓탄 포드를 장착할 수 있고, 고정무장으로는 GSh-23-2 23mm 2연장 기관포를 동체 아래에 장착한다.

중국은 FC-1의 잠재고객으로 중국이 수출한 J-6, J-7, Q-5를 보유한 국가 및 노스롭 F-5 시리즈와 닷소 미라지 I, II 계열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FC-1 개발과정에 참여해 향후 FC-1을 주력전투기로 운용하고 있고, 명칭도 JF-17로 변경해 부르고 있다.



파키스탄 공군의 곡예비행대에서 운용되는 JF-17

FC-1의 기체 크기는 미국의 F-16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동 성능과 전자장비, 무장을 고려하면 F-16C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FC-1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며, 저렴한 가격에 균형 잡힌 성능은 중국과 관계있는 중소국 공군에 큰 구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JF-17은 저렴한 가격의 경량 전투기이지만 다목적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 플랭커 계열



중국은 플랭커를 복제한 J-11에서 전자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J-16D(사진)까지 발전시켰다.

중국은 다수의 플랭커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다. 가장 먼저 배치된 플랭커는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u-27SK/UBK 기종이었다. 1991년부터 배치된 직도입 기체는 2009년에야 배치가 완료됐다. 중국은 직도입과 함께 면허생산을 병행했다. 중국은 1996년에 200대의 플랭커를 면허생산하기로 러시아와 계약했지만 2007년까지 104대의 J-11A를 조립했다.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생산 계약을 파기하고, 2013년까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J-11B를 대량 생산했다.



중국은 플랭커 계열 중에서 가장 고성능인 Su-35S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J-11의 복좌형 J-11BS를 토대로 다목적 전투기인 J-16도 개발했다. 2015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J-16은 전자주사레이더를 갖춘 고성능 기체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J-16D형으로도 발전했다. 이밖에 중국은 가장 고성능인 Su-35를 공군이, Su-30MKK, Su-30MK2를 해군이 도입했고, 항공모함 탑재용으로 J-15 함재기를 개발했다.

J-20 스텔스 전투기



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J-20

중국은 J-XX로 알려졌던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했다. 2011년에 공개된 J-20은 청두항공사가 개발한 고성능 전투기로, 스텔스 형상과 내부무기고를 갖추고 있다. J-20의 전반적인 형상은 러시아의 미그가 설계한 MiG-1.44와 유사하다. 기체 전방에는 대형 카나드가 있고, 공기흡입구는 기체 측면에 있다. 공기흡입구는 신형기답게 DSI(Diverterless Supersonic Inlet)*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스텔스 성능을 고려해 동체 내부에 무장을 장착하며, 날개의 앞전과 뒷전 각도를 통일했다. 수직미익은 기존 기체에 비해 작게 만들고, 러시아의 Su-57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중국이 만든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201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대량 생산을 통해 향후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DSI(Diverterless Supersonic Inlet): 디버터(diverter·경계층 분리기)가 없는 초음속 공기흡입구



글쓴이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독새우 독트린*, 싱가포르공군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은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탈퇴해 독립국이 됐다. 국토 면적 697km² (서울 특별시의 1.18배), 인구 600만의 이 도시국가 는 연 국민개인소득 58,500달러의 부자나라다. 군사력은 현역 51,000명(육군 41,000, 해군 4,000, 공군 6,000), 준 군사부대 7,400명(구르카 용병 1,800), 예비군 252,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 공·해군 일부 병력이 국내 기지에 주둔하며, 싱가포르공군은 브루나이·호주·대만·태국에서 해외 야외훈련을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싱가포르 야간 도심 거리 전경

* 독새우 독트린(Poisoned shrimp doctrine): 약소국을 잡아먹으려다 강대국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비유

버려진 섬 싱가포르의 역사

싱가포르는 수백 년 동안 해적의 소굴이었다. 현재 테마파크로 유명한 관광지 센토사(Sentosa)섬 역시 오랜 기간 해적의 근거지였다. 영국인 래플스(Raffles)는 1826년 영국이 말레이반도의 페낭(Penang)—말라카(Melaka)—싱가포르의 해협식민지를 완성할 때, 이곳 책임자로 임명됐다. 그는 싱가포르를 무관세 자유 무역항으로 만들었다. 이 도시는 아시아와 호주를 지배할 영국 해군기지로 변모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중국 노동자들이 떼 지어 몰려왔고, 돈 많은 상인이 넘쳐났다.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필리핀·말레이반도를 기습 공격한 일본이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를 점령했다. 점령 기간 3년 반 동안 일본군은 중국인 수만 명을 학살했고, 연합군 포로들은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1800년대 열악했던 싱가포르 원주민의 주거지 전경



과거 해적의 근거지였던 싱가포르 관광명소 센토사섬 전경



항복 협상 중인 영국군과 일본군 지휘부 조형물



1942년 2월 15일 일본군의 싱가포르 점령 포스터. 일본군은 남방군사령부를 싱가포르에 설치했다.

최고 전력을 자랑하는 싱가포르공군

싱가포르 공군박물관 입구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큰 덩치의 항공통제기(E-2 호크아이)가 전시돼있다. 1990년 4월에 최초 도입돼 싱가포르군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 이 항공기는 최신 장비를 갖춘 후배 기종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조용히 박물관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대한민국공군이 2011년 9월에서야 들여왔던 E-737(피스아이)에 비해 무려 21년 앞섰다. 자주국방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항공기다. 박물관 1층의 격납고에는 다양한 항공기·대공미사일과 중·대형 무인정찰기가 있다. 무인기 운용 요원은 미국·호주·뉴질랜드에서 교육받는다. 싱가포르공군은 해외 재난지원 작전에도 적극적이다. 2011년 태국 대홍수 사태 당시 헬리콥터 부대를 말레이시아 폐낭으로 파견했고, 2015년 네팔 대지진 때도 C-130 수송기부대가 현지 구조작업에 동참했다. 또한, 싱가포르공군은 최신형 항공통제기(G550-AEW) 지원으로 미국·호주·영국·프랑스와의 주기적인 공중전투와 급유 훈련을 시행한다. 아울러 공군부대와 비행 학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단체와의 긴밀한 교류로 우수 조종사 조기 선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공군박물관에 전시된 항공통제기(E-2 호크아이) 모습

국가인재의 산실(産室) 싱가포르 장교단

싱가포르는 성적이 우수한 훈련병 중 5%는 장교 후보생으로, 20%는 부사관으로 선발한다. 장교는 9개월, 부사관은 6개월 추가 교육 후 소위와 하사로 임관하지만, 엄격한 훈련과정에서 20% 내외의 탈락자가 생긴다. 이와 함께 충명하고 애국심이 넘치는 장교 후보생 중 최우수자원을 일부 엄선해 파격적인 해외 유학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된 인재들은 영국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인문학·공학을 전공하면서 중위 봉급을 받는다. 이들은 장학금 이외 생활비·잡비까지 지원받되, 8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또한, 현역 근무 중 미국·영국 명문대학의 위탁 교육을 통해 석사학위까지 취득한다. 의무복무를 마친 일부 엘리트 장교들은 정부 관료나 공기업에 먼저 충원된다. 이 제도는 군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을 탄탄하게 만드는 효자 노릇을 했다. 2002년 싱가포르 내각에 4명의 군장학생 출신이 포함됐고, 싱가포르 국민은 장교단이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됐다.



싱가포르 장교교육 군사학교의 사열대 전경(왼쪽)과 본관 전경(오른쪽)

국가 생존을 위한 '독새우 독트린(Poisoned shrimp doctrine)'

싱가포르는 주변 군사 강국들로부터 항상 위협을 느껴왔다. 첨단 기술력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했다. 싱가포르 육군은 500대의 최신형 전차가 편성된 기계화 부대를, 해군은 프랑스제 라파예트급 호위함 6척과 고성능 잠수함까지 보유했다. 공군은 F-15SG 40대, F-16C/D 60대, 조기경보기 4대를 운용하면서 F-35 스텔스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전쟁 발발 시 적국 영토 깊숙이 들어가 핵심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의도다. 상비 병력은 5만에 불과하지만, 유사시 25만 예비군을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미국·호주·브루나이·뉴질랜드·대만 등 해외에 별도의 군사 장비를 분산시켜 두면서 매년 GDP의 3%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싱가포르는 최첨단 장비와 고도로 훈련된 병력으로 충분히 독새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한다. [\[4\]](#)



싱가포르 군항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도



글쓴이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특별인터뷰 부산 동신초 선호승 선생님



Special Interview.

부산 동신초 선호승 선생님

8월의 어느 날, 월간 『공군』 편집실에 한 선생님의 전자우편이 날아왔다. 월간 『공군』 6월호(제540호) 기사들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많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겸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도 소개할 겸 편지를 쓴다고 하셨다. 함께 첨부된 잘 정돈된 약 30쪽 분량의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학생들의 활동과 소감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9월 초에 방문하면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말에 내리쬐는 햇볕이 따가운 초가을, 부산광역시로 떠났다.

Q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동신초등학교 교사 선호승입니다. 프로젝트 활동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제게 ‘공군’에서 복무했는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웃음) 저는 어릴 때부터 항공기에 관심이 많았고, 군사전문잡지를 10년 넘게 보면서 조금씩 밀덕(밀리터리 덕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KF-X 출고식을 앞두고 개발을 맡고 있던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우리 반 학생들과 응원 편지를 쓰는 ‘Fly with KF-X’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뿐만 아니라 공군에도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출처: 한국항공우주(KAI)]

2021년 3월, KF-X 제작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KAI에 편지와 함께 보낸 학생들의 모자이크 작품

Q2. 프로젝트 소개

3년 전부터 차례로 위에 말씀드린 ‘Fly with KF-X’ 프로젝트, KF-21의 초도비행 성공을 기원하는 ‘Take off with KF-21’ 프로젝트,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날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은 매년 3~7월에 항공우주 관련 주제를 선정합니다. 올해부터는 프로젝트명을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날개로’ 계속 쓰되, 항공기와 항공우주(과학)을 주제로 발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매년 반복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해에만 일시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프로젝트 수업(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삶과 배움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특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것을 가능케 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Take off with KF-21’ 프로젝트 중 KF-21 보라매 실물 크기 만들기 활동
(왼쪽: 최종 조립하는 모습, 가운데: 완성된 모형, 오른쪽: 조종석 위치에서의 기념사진 촬영)

Q3. 월간 『공군』 6월호(제540호)가 ‘프로젝트 특집호’인 이유

공군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함께 해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날개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실려 있었거든요. ‘〈기획〉 항공 선각자, 도산 안창호’,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AT-6(건국기)’, ‘〈내 옆의 공군인〉 프라미스 작전, C-130J 조종사와 항공적 재사’, ‘〈지금 이 순간!〉 블랙이글스, 말레이시아 LIMA 2023 국제에어쇼 참가’가 저희 프로젝트와 관련 있었습니다. 또, ‘Remember 6.25’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특별기고〉 故 딘 헤스 미 공군 대령 8주기 추모행사’도 실려 있었습니다.



월간 『공군』 23년 6월호(제540호)가 ‘프로젝트 특집호’라고 소개하는 선호승 선생님. 공군 관련 프로젝트 때는 교육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 마크 등을 온라인 구매해 자체 제작한 옷을 입는다.

Q4. 공군과 또 다른 인연

작년 10월 ‘대한민국을 지키는 4가지 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인근 군부대에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 부대들 중 하나인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학생들을 초청 해주셔서 올해 5월엔 비행단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KC-330, CN-235, H-130J 등의 항공기 견학, 화생방/군사경찰 장비·차량 체험 등을 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2023년 5월, 제5공중기동비행단 견학 사진



또, 건국기, KT-1 옹비, T-50 골든이글, KF-21 보라매 등의 항공기 개발역사와 이해를 위한 KT-1 페이퍼플레인, T-50/T-50B 프라모델, KF-21 블록 등 항공기 모형 만들기, Space Challenge 2023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활동한 작품(왼쪽: KF-21 블록, 오른쪽: 항공기 그림)

Q5. 가장 뿌듯했던 프로젝트

2021년부터 매년 6월에 한국전쟁에 대해 이해하고,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Remember 6.25' 프로젝트입니다. 2021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연히 라미 현(RAMI HYUN) 작가의 사진전을 봤습니다. 또, 2021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前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전쟁 참전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상을 보면서 수십 년 전에 퇴역했음에도 제복을 입고 거수경례를 하는 외국의 참전용사가 무척 멋있고,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우리나라의 참전용사분들이 청와대에서 훈장을 받을 때 흰 모자에 평범한 흰색 체크 무늬 점퍼를 입은 모습을 보며 저와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미 현(RAMI HYUN) 사진작가 사진전 'PROJECT SOLDIER'展

학생들과 의견을 모아 당시 국가보훈처장님께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제복을 제작해 주길 바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뒤 국가보훈처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연락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무렵 뉴스를 통해 '제복의 영웅들'이란 프로젝트로 현실화했으나 무상지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 아이들에게 1년 전 선배들과 진행한 프로젝트를 이야기해주면서 다시 무상지급 요청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올해 무상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교실 방문 환영회 기념사진

국가보훈처 담당자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의 2년에 걸친 청원편지가 제복을 제작하고, 무상지급을 하는 정책 결정에 큰 힘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작년과 올해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받고, 작년 6.25참전유공자회 부산지회에서 교실을 방문해주시기도 했습니다.

Q6. 앞으로의 프로젝트 목표

작년 가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4가지 힘’ 프로젝트로 국군의 날(10월 1일)을 기념해 군가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군의 모병 홍보 영상을 보고, 자율적으로 팀을 나눈 뒤 교사가 추천하는 각 군의 군가 5곡 중 팀별로 1곡씩 선정해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군가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건빵, 초코파이, 콜라 등의 간식을 함께 먹을 계획입니다.




2022년 진행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4가지 힘’ 프로젝트 사진



군가경연대회 후 공군가 영상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는 공군팀과 군복을 입은 선희승 선생님

프로젝트 때마다 교육계의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3년간의 프로젝트 활동과 재학생, 졸업생들과의 대화로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봤습니다. 교사 주도 활동을 학생 주도 활동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싶습니다. 2년 전 졸업한 제자가 중학교에서도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와 여러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서 프로젝트 주제나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와 생물 대멸종 위기의 극복’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큰 도전이겠지만, 꼭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Q7. 인터뷰 소감

프로젝트 기간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보면서 프로젝트 수업(활동)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편지로 해당 단체와 기관에 전달된 뒤 큰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소명감을 느낍니다. 또, 제 생일인 7월 27일은 정전협정일이자 UN 군 참전의 날이고,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던 곳은 UN 평화공원 바로 옆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웃음) 비록 저와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편지를 전하는 것이 다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젠 비공식 서포터즈가 되어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동신초 6학년 2반 학생들이 그린 공군 응원 카드



부산 동신초 6학년 2반 학생들과 선포송 선생님이 공군을 응원하는 문구를 들어보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굳건한 동맹의 기지를 가다!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9월 5일(화)부터 9월 9일(토)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청주~하와이 (18시간, 1만 5,000km) 장거리 해외 항법훈련을 떠났다. 해외 항법훈련은 생도들의 항법 능력 숙달과 국제평화·동맹의 중요성 이해 증진, 전·사적지 현장학습을 통한 역사·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한 장거리 비행 훈련이다. (장소: 하와이 한국전쟁 참전비)





공·해군 합동 대규모 해상조난자 탐색구조훈련

공군기동정찰사령부는 9월 4일(월), 공·해군 합동 대규모 해상조난자 탐색구조훈련을 주관했다. 훈련에는 공군 항공구조사(SART·Special Air force Rescue Team) 등 특수요원 30여 명과 공군 MC-130K·C-130·CN-235 수송기, HH-47·HH-60 헬기, 해군 독도함과 참수리급 고속정(PKM), UH-60 헬기 등이 동원됐다. 이번 훈련에 MC-130K와 독도함이 처음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다.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美 공군참모총장과의 기념촬영

미국·캐나다 군사외교

정상화 참모총장은 9월 11일(월)부터 9월 17일(일)까지 미국 및 캐나다 공군의 공식초청에 따라 해당국을 방문하여 군사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참모총장은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참모총장, 찬스 솔츠먼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 에릭 케니 캐나다 공군 사령관 등 주요 군사직위자들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요 안보정책 등을 설명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과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모총장은 각국에 위치한 한국군 참전용사 기념비(워싱턴 D.C)와 캐나다 전쟁기념비를 방문하여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에릭 케니(Eric Jean Kenny) 캐나다 공군 사령관과의 기념촬영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세미나



정상화 참모총장은 9월 7일(목), 공군호텔에서 항공기술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세미나’를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FA-50의 폴란드 상공 비행은 우리나라 항공무기체계 기술 수준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보여준 뛰어난 성과”라며, “이러한 결실은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노력과 민관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 각 분야 간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항공무기체계의 기술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246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



정상화 참모총장은 9월 1일(금), 교육사령부에서 제246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주관하여 3개월간의 기본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랑스럽게 임관하는 227명의 신임 부사관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임관 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본받아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군 부사관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며 “첨단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공군 전투력 발휘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공군본부

2023 공군참모총장배 족구대회 개최

공군본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족구협회가 주관하는 '2023 공군참모총장배 족구대회'가 9월 23일(토)부터 9월 24일(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공·육·해군, 해병대 장병과 군무원이 참가하는 '군인부'와 일반인이 참가하는 '민간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총 110팀 9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군수사령부

부서관단 제32회 대구사회복지대회 '대구광역시회의장의장상' 수상

군수사령부 부서관단은 9월 8일(금), '제32회 대구 사회복지대회'에서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대구광역시회의장의장상을 받았다. 코로나19 악화로 취약계층 지원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6월부터 노인 전문요양병원에서 비대면 환경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육영학사에도 비대면 환경미화를 지원 중이다.



제1전투비행단

초급부사관·병사 광주보훈요양원 자원봉사

제1전투비행단 초급간부와 병사 40여 명은 9월 7일(목), 국가보훈부 산하 광주보훈요양원을 찾아 환경미화, 이동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광주보훈요양원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보호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다.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3훈련비행단

민·군 합동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9월 8일(금), 부대 피해복구훈련장에서 훈련상 전시 동원된 민간 건설업체와 힘을 합쳐 ‘민·군 합동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을 전개했다. 탄도탄 공습 등으로 폭파된 활주로를 임시로 메우는 긴급 복구작업 대신 이번 훈련은 임시로 메워진 폭파구를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이용해 완전히 복구하는 절차를 훈련했다.



제17전투비행단

생물독소감시기 경보대응훈련

제17전투비행단은 9월 21일(목), 생물독소감시기 경보 대응 훈련을 했다. 훈련은 적의 생물학 테러 공격으로 인한 생물학 작용제 의심 물질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19전투비행단

‘문화19데이’ 운영

제19전투비행단은 9월 15일(금), 전문 플로리스트를 초청해 장병과 군무원 20여 명이 생화를 디자인 해보고, 꽃향기를 선택해 석고 방향제를 만들었다. 19전비는 지난 7월부터 매일 하루를 ‘문화19데이’로 지정해 희망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병영문화 예술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슬기로운 장병생활

역경을 이겨내는 꾸준함



장박원 前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해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산업부와 정치부, 국제부 기자, 중소기업부 부장을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김인경, 이정민, 전인지. 이들의 공통점은 여자 프로골프 선수라는 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 모두 ‘필드의 구도자*’라는 별명이 있다는 점이다.

김인경은 2012년 메이저 대회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우승하지 못했다. 그때 받은 충격과 상처, 열패감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 김인경은 트라우마를 떨쳐내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다. 경기를 칠 때면 책을 읽거나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가 자연이 주는 위안과 지혜를 얻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다. 아픔을 이겨낸 김인경은 그 후 여러 차례 우승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도 2012년 얘기를 묻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짧은 퍼트를 놓치는 건 인생 최악의 사건은 아니다. 그 일 때문에 1m짜리 퍼트도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오히려 넣으면 행복하게 생각한다.” 그는 2017년 LPGA 마라톤클래식 정상에 오른 뒤에도 가슴을 울리는 말을 남겼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 스스로 쏟은 노력에 자랑스러워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정민은 2021년 KLPGA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6년 3월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이후 5년 7개월 만이었다. 2016년 당시 이정민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8승의 성적을 거둔 유망주였다. 그의 경기 스타일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후 긴 슬럼프에 빠졌다. 오랜 기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어느덧 세계 순위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 이정민은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다. 목표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

* 구도자(求道者):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다. 어렵게 우승한 뒤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번도 성적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적이 없다. 원하는 골프가 나오면 성적은 좋았다. 원하는 샷과 퍼트가 안 나오니 안타까웠을 뿐이다. 골프는 잘된 샷보다는 못한 샷이 더 많기 마련이다. 하지만 못한 샷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턱에 발을 찍으면 다음부터 그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원리와 같다. 수만 번 시도해야 생각하지 않고 문턱을 지나가게 된다.”

전인지는 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스타다.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2013년 KLPGA 투어를 시작한 그녀는 차분한 경기로 많은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5년까지 무려 9승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그 이후 경력은 더 화려하다. 2015년 US여자오픈 우승, 한국·미국·일본 메이저 대회 석권,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역대 남녀 메이저 대회 최다 언더파 기록... 전인지에게도 부상과 슬럼프라는 역경이 찾아왔다. 그녀는 2018년 10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이후 4년 가까이 우승하지 못했다. 선물처럼 받았던 우승들이 전인지의 발목을 잡았다. 화려한 경력이 오히려 심적 부담을 키웠다. 골프 선수를 그만둘까 고민에 빠졌고 급기야 우울증과 거식증에 걸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인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내와 끈기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다. 마음을 다잡고 연습에 매진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과거의 성공을

잊고 한 샷 한 샷에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지난해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3년 8개월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전인지는 9월 KLPGA 투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출전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좌절을 극복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했다. “한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골프로 인해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으나 지금은 괜찮다. 골프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직 이루고 싶은 게 많은 만큼 멈출 수 없다. 앞으로도 내게 많은 것을 가져다준 골프를 즐기며 살아가려고 한다.”

필드의 구도자로 불리는 세 명의 골퍼는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꾸준함에서 온다는 교훈을 준다. 고대 로마의 명장인 퀸투스 세르토리우스(Quintus Sertorius)는 병사들에게 끈기의 가치를 하나의 실험으로 보여줬다. 그는 병사들 앞에 두 마리 말을 세웠다. 한 마리는 높고 연약했고, 다른 말은 크고 건장했다. 약한 말은 강한 병사에게 맡겼고, 강한 말은 덩치가 왜소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그리고 말의 꼬리 털을 뽑는 시험을 했다. 힘이 좋은 병사는 한 번에 꼬리 털을 다 뽑으려고 했다. 하지만 소란만 떨었을 뿐 성과는 없었다. 작고 연약한 병사는 한 올씩 힘들이지 않고 털을 다 뽑았다. 세르토리우스는 말했다. “꾸준한 인내는 강한 힘보다 효력이 크며 무리 지어 있을 때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도 야금야금 정복하면 무너지는 법이다.”



출처: 게이이미지뱅크

한 달, 한 권

현실 밀착형 소설: 『달까지 가자』



진아 작가

고등학생들과 수다 떠는 재미에 학교에 가는 국어교사. 혼자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책 이야기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엄마만으로 완벽했던 날들』, 『쓰다보면 보이는 것들(공저)』를 출간했다.

스무 살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집에서 먹고 자는 일을 해결했기에 완전한 독립으로 보기 어렵지만, 교통비·외식비·휴대전화 요금 등은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도 하고, 과외도 했지만, 스무 살이 벌 수 있는 돈은 고만고만해서 금방 통장이 바닥나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 십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당시 십만 원은 아끼면 2주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은 십만 원이 아니라, ‘몇억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돈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 이유는 소개해드릴 책 『달까지 가자』가 돈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가상 화폐의 열풍이 불던 때입니다. ‘달까지 가자’라는 제목은 ‘투자 이득의 최고점까지 가자’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심인물인 다해, 은상, 지송은 마론제과라는 제과 업체의 직원입니다. 세 사람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마론제과의 정직원이 된 경우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세 사람을 다른 정직원과 차별해요. 셋은 근무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서로를 알아보고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다해와 지송은 은상이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가진 돈 모두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상은 자신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밝히며 함께 할 것을 제안해요.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난색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해는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 새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음에도 돈이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여기서 다해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나는 1말고 1.2를 원했다. 그 추가적인 0.2가 내게는 꼭 필요했다.(73쪽)”

다해는 투룸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1.5룸도 아니었습니다. 0.2만큼의 아주 약간의 공간을 더 바랄 뿐인데도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런 다해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하라’는 은상의 제안은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집니다.

다해는 낮두리하듯 말해요. 자기 삶이 박음질* 같은 삶이었다고요. 다해는 한 땀을 나아가고 반 땀을 물러서는 셈이니 제자리걸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걸 자각하고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부스터 같은 걸 달아서 한 번에 치솟고 싶었다. 점프하고 싶었다. 뛰어오르고 싶었다.(98쪽)”라고 생각해요. 허황하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이더리움 투자가 자기 삶에 부스터가 되어줄 수 있다면 한 번 해보자 마음먹어요. 결국 다해는 은상을 따라 투자를 감행합니다.

지송의 상황은 둘보다 더 나쁩니다. 다해와 은상은 우연한 기회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지송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마론제과에 ‘오오’라는 직렬로 입사했어요. ‘오오’란 오피스 오퍼레이터의 약자로 “정직원보다는 단순하고 제한적인 업무를 하지만 계약직보다는 조금 더 숙련이 필요하되, 그 업무가 일시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일일 경우 고용하는 형태(224쪽)”라고 합니다. 이런 특이성 때문에 지송은 업무 평가도 같이 받지 않고, 같은 연차의 정직원에게 비해 급여도 현저히 적으며, 상여금·성과급도 받지 못해요. 심지어 팀 사람들이 함께 점심을 먹어주지도 않을 만큼 눈에 드러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송은 마지막까지 둘의 이더리움 투자를 열렬히 반대합니다.

그러던 중 세 사람이 함께 휴가를 떠나는데, 은상이 거의 모든 비용을 혼자 냅니다. 지송은 복잡한 기분을 느껴요. 말도 안 되는 투자라며 둘을 만류하고 비난한 지송이지만, 결국 은상의 쓴소리에 외면하던 현실을 직시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결국 지송도 이더리움 투자에 뛰어듭니다.

이 소설은 지극히 현실적인 소재로, 어쩌면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투자로 큰돈을 벌 때마다 어쩐지 함께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돈의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돈은 벌기 위해 몇 년을 고군분투하던 지난날이 떠올라서였을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숫자를 보며 어쩐지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이 숫자가 뭐길래. 이토록 우리를 웃고 울게 하는가?’ 하고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투자의 다른 측면을 본 것은 아닙니다.(투자를 부추기는 그런 소설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진 것을 모두 걸고 싶은 절박함이었어요. 돈과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그 정도의 돈이 생긴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달라질지...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현실 밀착형 소설 『달까지 가자(장류진)』였습니다. 



『달까지 가자』
장류진 지음 | 정배 편역

* 박음질(back-stitch): 첫 땀보다 한 땀 앞에서 바늘을 뽑은 후 첫 땀 자리에 꿰고 다시 한 땀 앞에서 뽑은 후 전에 바늘을 뽑은 자리에 꿰는 방법을 되풀이한다. 즉, 바늘땀을 한 땀만큼 완전히 뒤로 돌아와 뜯 것

영화로운 나날

0에 수렴하는 인간의 불완전함: 「오픈하이머」



송희운 마케터

워킹맘으로서 일과 육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사람. 일과 육아 사이에서도 계간지 「CAST」와 '브런치'에 꾸준히 영화 관련 글을 게재하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열두 번째 장편 영화 「오픈하이머」가 지난 8월 15일 개봉했다. 주로 SF(Science Fiction) 영화를 연출해 왔던 놀란 감독이기에 실존 인물을 다루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 그다지 흥미가 가지 않았으나,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영화를 관람했다.

영상미에서는 완벽했던 놀란 감독의 전작 「테넷(TENET)」은 시간 순서를 꼬아 놓은 복잡한 연출로 이야기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오픈하이머」에서도 놀란 감독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순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원자 폭탄을 발명한 오픈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¹⁾에 참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원자력협회의 오픈하이머 청문회, 그리고 오픈하이머와 갈등을 빚었던 루이스 스트로스 제독의 인사청문회.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타임 라인을 뒤섞어 보여준다.

오픈하이머는 유학 생활 중 제대로 된 적성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이론물리학·양자역학을 접한 뒤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다. 오픈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전개되는 청문회 장면으로 그가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과학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청문회는 스트로스 제독이 앙심을 품고 오픈하이머를 몰락시키기 위해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한 무대다. 동시에 오픈하이머가 어떤 다른 면을 가진 인물인지 드러나게 하는 장치기도 하고, 오픈하이머에게도 스스로의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자리다.


1)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자치령이 참여한 핵무기 개발 계획. 극비로 진행됐으며, 세계 최초로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매카시즘²⁾ 광풍으로 숙청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오펜하이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 그가 과학자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조국에 충성스러운 인물인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그들의 증언은 오펜하이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청문회로 인해 보안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오펜하이머는 점점 몰락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겨우 회복했지만, 명예 회복 전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에 시달렸다. 자신이 개발한 원자폭탄에 대한 권한도 없고, 자신이 만들어 낸 원자폭탄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과학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만, 그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됐다. 오펜하이머는 독일의 핵무기 개발이란 최악을 면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는 최선을 선택했지만,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명예 회복 전까지는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영화 대사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원자폭탄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줬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오펜하이머가 트리니티 실험³⁾을 하기 전 원자장치의 연쇄 작용이 멈추지 않는다면, 단 한 발만으로도 대기권이 모두 불타버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온 덕분에 계획대로 실험은 이뤄진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자가

나오고, 이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면서 오펜하이머가 말한 0에 가까운 가능성은 결국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게 돼버렸다.

0에 가깝다는 것. 0이 아닌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란 존재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오펜하이머’란 인물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해 보인다. 모두에게 선망받는 과학자였지만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으며,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었기에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간 것이다. 「오펜하이머」는 단순히 오펜하이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조명하는 영화가 아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굴곡을 겪었는지를 통해 한 인간이 가진 ‘인간성’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드러내는 영화다. 천재 과학자의 특별한 인생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모두 녹아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이 가진 양면성이라는 본질에는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오펜하이머」

2) 매카시즘(McCarthyism): 1950~1954년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산주의 선풍

3) 트리니티 실험(Trinity Atomic Test):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핵실험으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성공과 함께 원자력 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

시와 비행하다

익선동



강혜빈 작가

뉴노멀이 되고 싶은 양손잡이. 시를 쓰고 찍습니다. 2016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사진가 '파란피'로 활동 중입니다. 문예창작과 불문학을 공부하고, 다수의 문예지 및 잡지에 시와 에세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커다란 구름을 만들듯이, 희미한 빛들이 모여 어두운 귀퉁이를 밝게 비추듯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듯이, 세상에 없던 빛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노트]

초가을의 문턱. 어느덧 구월이 지나고 시월이 다가온다. 그런 가을의 초입에 어울리는 시. 어느 수상하고 좋은 날에, 화자는 걷는다. “수상하고 좋은 날”이라고 되뇌며. 성벽 따라 ‘새로 태어난 가을 처럼’ 걷는다. 새로 태어난 가을이란 어떤 모습일까. 무더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면서 저녁 나절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가을이 정말 내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기분이 든다. 계절의 변화로 어떤 시절과 어떤 시절 속에 담긴 사람, 물건, 현상들은 지나가고 그저 새로운 내가 된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는 화자처럼. 일순간 클로즈업되는 장면이 있다. 너무나 안전한 주머니 속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상처럼. 고요한 장면 뒤로 간판들은 사라지고, 주민들은 쫓겨나고, 구름들도 함께 물러간다. 익선동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던 기억으로부터 이 시는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오가는 골목에는 새로 생겨나는 가게들과 사라지고 있는 가게들이 뒤섞여 있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울음소리를 궁금해 하는 사람과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는 사람은 같다. 나는 아날로그 기계인가, 디지털 인간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시절에는 누군가 ‘나’의 생사를 걱정하고, 저절로 믿어지는 사랑도 있었다. 밥은 먹었는지 그곳의 날씨의 어떤지, 자그만 안부를 묻고 상대를 궁금해 하는 행위는 사랑에 다름 아니다. 다만 빈집으로 두는 사람은 부재를 부재로 둘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 집에 누가 드나들더라도 초연할 것이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더라도, 혹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아무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 가을에 부는 바람은 소슬바람이듯, 모두 이름이 있다. 당신의 이름이 ‘유’가 아니라 ‘류’자로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듯.

수상하고 좋은 날이다

커다란 성벽 따라 걷는다
오늘 새로 태어난 가을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본다
한 사람의 주먹에 꼭 들어맞는다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홀연 사라지는 간판들
시절보다 먼저 물러나는 종인
어떤 구름들

개개비는 개개개 울고
매미는 맴맴맴 운다는데
나는 무어라고 울까

아날로그 기계가 되고 싶은
디지털 인간은 제법 쓸쓸해보였다

오늘 같은 날에는 아무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어

우연히 같은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자리에서 일어설지라도

수상하고 좋은 날이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의 뒷모습에서
느티나무 같은 그늘을 보았다

“그동안 당신이 죽을까봐 걱정했어요”

한 그루의 나무에서
함께 늙어가는 나뭇잎들은 어쩐지
다정하고 무상하지만


이 좁은 골목 안에는
더 깊은 반성과 비밀과 기다림이 있어

오늘 참 쾌청하지요
공연히 날씨 이야기만 하게 되어도
저절로 믿어지는 사랑이 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과
다만 빈집으로 두는 사람

“아무도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을에 부는 바람의 이름은
소슬바람

나는 당신의 이름이
‘류’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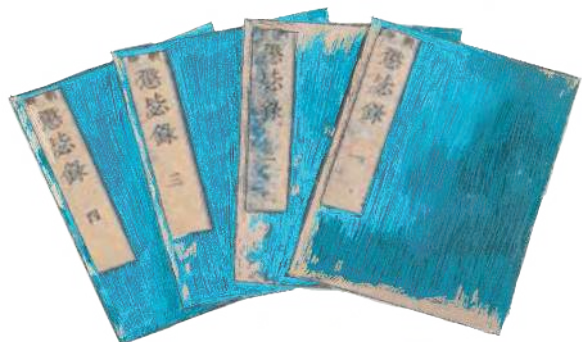
생각하는 그림

영공을 수호하는 최선의 자세,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실생활에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약 400년 전에도 후손들을 위해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동안 영의정과 도체찰사로 국정과 군무를 총괄하며 전쟁을 지휘했던 조선의 문신,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입니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슬픔과 원망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기록하기 위해 징비록(懲毖錄)을 집필했습니다. 여기서 ‘징비’는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앞으로 발생할 후환과 어려움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조정이 충분히 임진왜란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정세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징비록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다시는 이러한 전란을 겪지 않도록 당시 상황과 과오(過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있는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징비록은 우리에게 ‘군사훈련과 대비태세에 조금의 소홀함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일본은 유럽을 통해 신무기를 도입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 훈련을 오랜 기간 이어나갔습니다. 반면, 조선은 적의 상황과 실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쟁을 대비하면서 안일한 자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도인 한성은 20일 만에 함락됐고, 선조는 명나라로 몽진(蒙塵)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혼란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징비록은 우리에게 준비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큰 후환을 가져다주는지 알려줍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요소, 특히 북한을 비롯한 다양한 적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안보정세 속에서 우리 군 역시 투철한 안보의식과 매 순간 준비된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징비록의 가르침을 받아 조국 영공 수호를 위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슴속에 새기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

공군인의 편지 눈 위의 발자국

일병 남태현

어린 시절부터 사이좋은 남매의 오빠,
동생을 많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학도.

사랑하는 소중한 내 동생에게

오빠는 가끔 어린 시절, 오빠 손을 잡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함께 걸어가던 너의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난다. 그렇게 항상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학교로 들어갔었던, 마냥 어린애로만 있을 줄 알았던 효현이가 어느덧 고3이 되어 며칠 뒤면 학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몇 달 전 휴가를 나갔을 때, 효현이가 독서실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오빠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효현이가 자랑스러웠었다.

사실 ‘수능’이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능이 끝난 뒤에도 대학교 졸업, 취업 등 많고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위해 시험 보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오빠도 수능을 치를 때 오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지닐 수 있던 것 같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든 효현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효현이가 ‘인생’이라는 눈발을 걸어갈 때, 오빠가 몇 발자국 앞에서 꺾꺾 ‘눈 위의 발자국’을 남겨, 효현이가 ‘오빠의 발자국’을 보고 앞으로 열심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오빠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게.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원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더 나아가 항상 어떤 일이든 지금처럼 열심히 하길. 부모님과 오빠는 항상 효현이를 응원한다.

사랑한다. 내 동생! 



책 읽는 공군 도전하기, 부딪히기, 느리게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기

병장 백종현


시 쓰는 대학원생 문화연구자.
읽고, 쓰고, 달리며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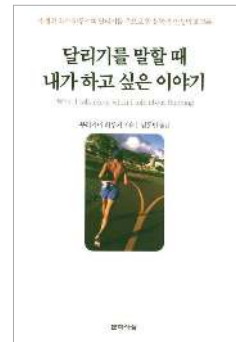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 하루 5km 정도를 달린다. 때론 매일 달린다. 그런데도 내게 달리는 매번 새로운 도전이다. 특히 3km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른 시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게 3km는 바다와 언덕을 넘어, 길게 이어지는 평탄한 지대에 접어드는 구간이다. 나는 항상 그 구간에서 어떤 벽 같은 것을 느낀다. 그럴 때면 하루키를 떠올린다.

『노르웨이의 숲』, 『1Q84』 등의 베스트셀러를 낸 일본의 대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실 엄청난 실력의 러너다. 그냥 러너일 뿐만 아니라 풀코스 마라톤을 25회 이상 완주한 마라토너이며, 트리아슬론을 3회 이상 달성한 체육인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우연히 알게 됐다. 입대 전, 서점에서 그가 쓴 달리기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를 발견하면서였다. 책엔 제목 그대로 달리기에 관한 내용만 가득했다. 어렸을 적 나는 운동회에서 대열을 이탈할 정도로 뒤쳐진 뒤 달리를 두려워하게 됐다. 그런 내게 책 내용이 들어올 리 없었고, 서점에서 대충 훑은 뒤 덮었다.

그러나 이후 입대를 준비하며 달리를 해야 했다. 3km, 그때부터 내 도전은 시작됐다. 나는 남들보다 느리다. 적어도 운동이나 신체 능력은 그렇다. 매일 노력했음에도 쉽게 뒤쳐지고 기록은 줄지 않았다. 훈련소 수료 이후에도 습관처럼 달리를 계속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 운동회에서 뒤쳐지던 어린 내가 떠올라 몸서리쳐졌다. 나는 멈췄다. 더 달리지 않았다. 그렇게 더 달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이 책이 그 이유를 찾아줬다.

“아무리 천천히 달리더라도 멈추지 않는다.” 레일 위에 선 러너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천천히 달릴 수는 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어진다. 나는 멈춰있었다. 앞을 바라보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천천히 달리는 중이었음을 깨달았다. “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다.” 달리기에서 끝은 목표의 달성인 동시에 중간 과정이다.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오늘의 기록과 내일의 기록은 사실 끝이 아니라 수많은 끝과 끝이 모여서 성장이라는 과정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공군 핵심가치이기도 한 도전(挑戰)의 한자 풀이는 ‘싸움에 맞서다’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어깨에 메다’란 뜻도 있다. 나는 지금껏 그 두려움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맞서오며, 한 걸음씩 성장했다.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나아간다. 비록 풍경이 달라지지 않는 평탄한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조금씩 멈추지 않고 나아감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오늘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인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어제의 나와 싸우며.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문학시선 펴냄

토닥토닥 상처의 천적, 상상력

로마에 갔을 때 가이드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바티칸이 사랑한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은 하늘에서 보아야 완벽해진다고. 그의 작품 대다수가 신의 평가를 받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 말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다. 하늘에서 봐야 완성되는 작품이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은 어떠한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조금은 억척스러워도 좋으니 삶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삶의 매서움 앞에 늘 길을 잃었고, 타인의 시선 앞에 항상 주눅들었다. 그나마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글을 쓰면서부터였다. 매일 단어와 단어를 쌓아 문장의 집을 지었다. 문장의 집을 견고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집을 방패 삼아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매일매일 문장의 집을 짓고, 이제는 제법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었다. 강한 사람일 수 없는 이유는 간단했다. ‘강함’의 기준은 방패가 아니었다. ‘강함’의 기준은 삶을 지켜내는 태도에 있었다.

지난 계절, 원고를 탈고하면서 철학자 니체의 문장으로 책을 마무리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 역시 간단했다. 삶의 고통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와 삶에 상처를 낸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오래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됐다. 진짜 강해지는 법은 강한 방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 ‘상처를 극복하는 법이 있나요?’ 한결같이 그 답의 비밀이 ‘시간’에 있다 답했다. 하지만 그 답은 ‘상상력 한 스푼’에 있었다.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지금의 고통이 나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상상력이 필요했다. 습관처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상상력 한 스푼을 부어본다. 상상력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열리는 상처들이 격려한다. “있을 때마다 삶은 투명해지고, 아플 때마다 삶은 강해진다.” 나 역시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반드시 강한 모습으로 이겨낼 거라고.”



서은 작가

빛의 문장들을 수집하며 문장 안에서 행복과 희망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자로 글 세계에 입문해 작가와 강연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문장의 위로』, 『계절의 위로』, 『오늘은 좀 어땠어요』, 『달에게』가 있다. (@seo.eun5330)

마음의 소리

전민수

junray06**@naver.com

공군 병사로 복무하면서 매달 월간 『공군』이 나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월간 『공군』을 통해 각 부대의 다양한 소식과 정책을 볼 수 있었고, 나이가 많은 공군인의 삶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계속 읽고 싶어 며칠 전 구독 신청도 했습니다. 알찬 구성으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휘

jangjih**@gmail.com

류시화 시인의 『인생우화』를 읽은 공군 장병의 서평을 읽고 ‘특정 가치의 소유만을 위해 왜 필요한지에 관한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잃고 집착해본 적은 없나?’하는 질문과 함께 스스로 되돌아봤습니다. 한가위가 다가오는 9월, 성찰하는 사색의 시간을 통해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을 항상 응원합니다.

장우익

wikja**@naver.com

‘도(刀)와 검(劍)’에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소중함을 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크나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시기, 나를 믿어 준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떻게 생각해보습니다.

AF

월간 『공군』을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역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우주공군 파이팅!

AF

독서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은 특히 사색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월간 『공군』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독서와 사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AF

나를 포함한 누군가가 말로써 상처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지녀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소통을 하길 바랍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공백포함 1,250자 내외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ekgald123@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대한민국공군 창군 **74주년**
앞으로도 우리 영공을 지키겠습니다